

문화과학 페미니즘 스터디/ 정원옥/ 2015. 10. 3

실비아 페데리치. 『캘리번과 마녀』. 황성원·김민철 역. 갈무리. 2011.

### 3장. 대캘리번: 반란자의 신체에 대한 투쟁

자본주의 발달의 전제조건 중 하나는...개인의 힘을 노동력으로 전환시키려는 국가와 교회의 시도로 구성된다. 이 장에서는 이 과정이 당시의 철학적 논쟁들 속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영향을 받았는지 검토할 것이며,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생성된 전략적 개입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195)

시초 축적 시기의 상황. 새롭게 출현한 부르주아지들은...소농으로부터의 공유지 몰수만으로는 프롤레타리아트들에게 임노동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16세기와 17세기에는 임노동에 대한 혐오가 너무 극심해서 많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새로운 노동조건에 굴복하느니 차라리 교수형에 처할 위험을 감수했다. 이것이 최초의 자본주의 위기였다. 부르주아지는 처벌을 강화함으로써(특히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진정한 공포체제를 시행하고...노동자들을 강제된 노동에 속박시키기 위해 부랑자들에 대한 “피의 법령”을 도입했으며, 처형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198~9)

지배계급의 폭력은 범법자들에게만 가해진 것이 아니었다. 이는 개인의 급진적인 개조를 목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들이 더 엄격한 노동규율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게임 금지, 공중목욕탕과 선술집 폐쇄, 노출에 대한 처벌, “비생산적인” 섹슈얼리티와 사교 행위, 술, 욕, 악담 금지. 신체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정책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신체를 모든 악의 근원으로 공격했던 점이 새로운 지점이었다.(200)

신체에 대한 집착은 지배계급이 프롤레타리아트에게 공포를 느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 가난하고 반항적인 프롤레타리아트가 사실 모든 부의 원천으로 등장하게 된 사회 주체들과 동일한 집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201) 신체는...노동의 종용에도 꿈쩍 않는 야수일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소유고이자 생산수단, 중요한 노동기계. 신체의 움직임과 부속기관들에 대한 연구는...당대 대부분의 모험적인 이론의 출발점이 되었다.(202)

홉스와 데카르트는 당대의 대변자들이었다. (203) 신체는 1634년 데카르트가 『방법서설』에서 선언한 순수한 “구성성분들의 집합”이다.(204) 홉스에게 역시 신체는 기계적 움직임의 집합이다. 기계론적 이론가들은 신체를 비난하지 않는 대신 신체의 작동을 이해가능하고 통제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개념화하고자 함.(205) 이들의 인간본성/자연에 대한 탐구가 새롭게 나타난 자본주의 과학의 연구에 크게 공헌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기계론적 철학은 자연

계에 대한 지배계급의 통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인간본성에 대한 통제가 최우선적이며, 가장 필수불가결한 단계가 되도록 만들었다.(206)

데카르트와 홉스는 육체의 현실에 대한 경의에서 두 가지 상이한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데카르트의 관점에서는...신체를 의지의 문제로 만드는 자기관리 메커니즘의 발달이 가능해졌다. 반면 홉스의 관점에서 보면 신체의 기계화는 개인이 국가권력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결론적으로 신체적 속성을 재정의함으로써 신체를, 이상적으로, 최소한, 자본주의적 노동규율이 요구하는 자동기법과 규칙성에 걸맞게 조정하는 결과를 낳았다.(207)

토지처럼 신체는 경작되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해되어야 한다. 신체가 죽어야만 노동력이 살 수 있다.(208) 실제로 신체는 파괴되었다. 새로운 철학의 이면에는 국가의 엄청난 주도권이 있는데, 여기서 국가는 철학자들이 “비이성”으로 분류한 것을 범죄화했다. 이와 같은 국가개입은 기계론적 철학에 필수적인 “외적 조건”이었다.

중세시대 전반에 걸쳐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있었던 마법적인 세계관과 마법에 대한 공격을 이런 식으로 독해할 필요가 있다.(209) 자본주의적 노동합리화를 위해서는 (마법의) 관행들을 없애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마법은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힘의 형태인데다가 **노동을 하지 않고는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수단**, 다시 말해 노동의 거부를 의미했기 때문이다.(210) (17세기 지배계급에게) [마법적인] 힘이 실재하는가 아닌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마법에 대한 신념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 저항의 근원이었기 때문이다.(212)

마법과 자본주의적 노동규율이 양립 불가능하고 사회적 통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국가는 마법에 대한 공포와의 전투에 착수했다.(213) (마녀들과 마술사들에 대한) 고문이 자행되던 고문실은 수많은 사회적 규율이 누적되고, 신체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어낸 실험실이었다. 이 맥락에서 중요한 요소는 낙태와 피임을 **사악한 행위**라면서 비난했고, 이로 인해 여성의 신체(노동의 재생산 기계로 축소된 **자궁**)가 국가와 의료전문가의 손에 맡겨지게 된 점이다. 뒤에서 나는 마녀박해가 근대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신체에 대한 국가개입의 결정이었다고 주장할 것.(214)

국가의 시도는 신체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결정한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기술의 발달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17세기부터 제조업자의 작업장에서 해부학적 유추가 나타나기 시작. 팔은 지렛대에, 심장은 펌프에, 폐는 풀무에, 눈은 렌즈에.(216) 주먹은 망치에 비유되었다. 이런 기계적인 은유는....**기계가 사회적 행위의 모델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회적 통제의 필요를 자극한 힘은 천문학 분야, 사회과학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217) 모든 형태의 사회적

행위를 숫자, 무게, 양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새로운 과학...페티의 프로젝트는 통계학과 인구학의 발전을 통해 실현되었다. 개인이 자본주의로의 이행기에 겪었던 추상화 과정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인간 기계”의 발달이 중요한 기술적 도약이었음.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최초의 기계는 증기엔진이나 시계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신체였던 것이다.(218)

신체가 기계라면...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데카르트 모델은 순수하게 기계적인 신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동의에 기초한 통치와 자발적인 노동관계를 가능케 하는 자기규율, 자기관리, 자기조절 같은 개별 메커니즘의 발달 가능성을 상정한다. 다른 한편 홉스의 모델은 신체에서 벗어난 이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통제기능을 외부화하여 국가의 절대적인 권위에 이 통제기능을 위임한다.(218)

자본주의 사회·경제 체제 안에서는 자기관리(즉 자기통치, 자기발전)의 증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223) 데카르트 철학의 사회적 중요성은 부분적으로는 데카르트의 철학이 자본주의 체제를 지적으로 정당화시켜준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자기통제의 역학에 대한 통찰력은 주인과 노예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 모델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17세기 말 경 데카르트의 이념이 유럽 전역에 확산(224)(된 반면) 홉스의 무신론과 유물론에 대해 당대에 비판이 일었던 것은 종교적인 우려 때문만은 아니었다. 개인은 욕구와 혐오감만으로 작동하는 기계라는 홉스의 관점에 대한 거부감은 그가 국가의 철의 규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또 다른 사회적 통제의 가능성을 배제한 데서 기인한다.(226) 데카르트의 “일신론”과 홉스의 “유물론”간의 갈등은 결국 상호동화를 통해 해결된다.(227)

신체로부터의 소외는 개인 정체성을 발달시키는데, 이는 정확히 신체와는 다른 “타자성”으로 사고되며, 신체와는 꾸준히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 같은 또 다른 자아의 출현과 심신의 역사적 갈등의 공고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탄생했음을 나타낸다.(228)

17세기 내내 자기관리는 부르주아의 특권이였다. 철학자들이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 이는 상류층, 성인, 백인 남성으로 구성된 소수 엘리트만을 일컫는 것이었다.(228) “더 나은 부류들”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아예 다른 인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과정에서 신체가 모든 자연주의적인 함의를 상실하면서 동시에 신체의 기능이라는 개념이 나타났다. 신체는 이제 더 이상 특정 실체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지배를 방해하는 존재일 뿐이다. 이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신체”가 되었다면 신체는 “프롤레타리아트”, 특히 약하고 비이성적인 여성 혹은 “거친” 아프리카인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거대한 야수”에 대한 투쟁은 “하층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자연상태”에 대한 전투에서 이 투쟁을 내부화했다. 프로스페로와 마찬가지로 부르주아지 역시 “이 어둠은 내 것”임을, 다시 말해서 캘리번이 프로스페로의 일부임을 인정해야만 했다.(229)

프롤레타리아트는 캘리번처럼 사회적 신체 안에 숨은 “나쁜 기질”의 화신으로서 게으름과 알코올중독을 감추고 있는 괴물로 출발했다. 이들의 유토피아는 노동하는 삶이 아니라 무릉도원이다. 삶이 기나긴 카니발이기를 꿈꾸던 이 게으른 존재를(233) 노동자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생각은...말 그대로 “세상을 뒤집어엎는 일”. 완전히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세상을 뒤엎을 수만 있다면 자본주의적] 통제에 대한 무기력은 욕망과 자율적인 의지의 박탈로 변형되고, **성애적인 힘은 노동의 힘이** 되며, 필요는 결핍과 금욕, 영원한 가난이라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17세기 신체의 탄생은 [역설적으로]으로 신체의 종말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신체라는 개념은 더 이상 특정한 유기적 실체를 의미하는 대신, 계급관계의, 그리고 착취지도에서 계급관계를 만들어낸, 꾸준히 변동하는 경계들의 정치적 기표가 되었기 때문이다.(234)

#### **4장. 유럽의 대마녀사냥**

마녀사냥이라는 주제는 여성주의운동이 등장한 뒤에야 그동안 처박혀 있던 음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여성주의자들 스스로 자신을 마녀와 동일시하면서 마녀가 곧 여성 저항의 상징으로 채택된 덕분이었다.(238~9) 여성주의자들은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권력구조에 도전하지만 았더라도 대량살상과 극악한 고문에 시달리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순발력 있게 알아냈다. 또한 이들은 최소한 2세기에 걸쳐 여성을 상대로 진행된 전쟁이 유럽 여성사의 전환점이었다는 사실 역시 깨달았다. 반면 극히 소수의 예외는 있지만 맑스주의 역사가들은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연구할 때마져 마녀사냥이 마치 계급투쟁의 역사와는 무관하다는 듯이 망각해버린다.(239)

#### **마녀화형기와 국가의 주도권**

내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녀사냥은 죽어가던 봉건세계의 마지막 불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미신에 사로잡힌” 중세는 그 어떤 마녀도 박해하지 않았다.(240) 16세기 중반 이후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예속시키던 몇 십 년간, 마녀재판을 받는 여성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1580년과 1630년 사이에 절정에 달했는데, 이 시기는 봉건적 관계가 중상주의적 자본주의의 전형에 가까운 경제 및 정치 제도들로 이미 대체되기 시작하던 때였다.(242)

마녀사냥은 엄청난 공적 조직과 관리를 필요로 했다. 행정당국은 마녀 확산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출하면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녀를 식별하는 법을 가르치는 등의 방식으로 꾸준한 세뇌작전을 펼쳤다.(243)

박해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법학자, 치안판사, 악마연구자들. 16세기 말엽에는 표준화된, 거의 관료적인 수준의 마녀재판 형식을 마련했다. 철학자, 과학자 등도 협력의 대상. 홉스는 마법의 존재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지만 사회적 통제수단으로서 박해를 인정.(245) 보댕은 마녀들을 산채로 화형에 처해야 하고, 소각시키더라도 죽기 전에 살이 썩어 들어가도록 해야 하며, 아이들도 화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녀의 사술은 유럽의 지식인 엘리트들이 가장 좋아하던 토론주제였다. 판사, 변호사, 정치인, 철학자, 과학자, 신학자 모두가 이 “문제”에 정신이 팔려 소책자와 악마론을 저술했고, 이것이 가장 비도덕적인 범죄라는 데 동의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로마가톨릭교회는 마녀사냥의 형이상학적·이데올로기적 발판을 제공했고, 마녀사냥을 부추겼다.(246) 하지만 통념과 다르게 마녀사냥은 광신적인 가톨릭이나 종교재판이라는 계약의 산물만은 아니었다. 절정기에 대부분의 재판을 수행한 것은 세속법정이었다. 가톨릭과 청교도 국가 모두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서로 전쟁을 치르면서도 마녀를 박해할 때만큼은 어깨를 걸고 뜻을 같이 했다는 사실은 마녀사냥의 정치적 본성을 깊이 드러낸다. **마녀사냥은 종교개혁으로 인한 분란 이후 유럽 통합의 첫 사례이자, 새로운 유럽 국민국가의 정치에서 최초의 통합의 장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247)

#### 마귀신앙과 생산양식의 변화

국가와 교회는 어떤 공포를 느꼈기에 합심하여 이런 집단학살 정책을 펼쳤던 것일까? 그리고 왜 그 주요대상이 여성이었던 것일까?(248) 우리는 유럽의 마녀사냥이, 자본주의적 관계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여성들의 저항에 대한, 그리고 섹슈얼리티와 재생산에 대한 통제력과 치유능력을 통해 여성들이 획득한 권력을 공격한 것이었다고 결론지어야만 한다.(249)

마녀사냥은 새로운 가부장적 질서의 구축에 활용되기도 했다. 이 새로운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여성의 몸과 노동, 이들의 성적인 능력과 재생산능력은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되었고 경제적 자원으로 변형되었다.(250) 마녀사냥의 대상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범죄가 아니라, 과거에는 용납되었지만 이제는 [의식적으로] 공포와 범죄화를 통해 공동체에서 몰아내야만 하는 관행과 집단이 되었다.(251) 마녀사냥은...“폭넓은 대중신앙과 관습들을 따라 다니며 괴롭히는 발판”으로서, 또한 사회 및 경제적 재구조화에 대한 저항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로 진행되었다.(251)

농촌자본주의의 확산과 그 영향(토지 몰수, 사회적 격차의 심화, 집단적 관계의 붕괴)이 마녀사냥 배후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은 대다수의 피소자들이 가난한 농민여성들(날품팔이, 임금노동자)이었던 반면 이들을 기소한 사람들은 고용주나 지주, 즉 지역 권력구조의 일부를 점하고 있으면서 중앙국가와 긴밀한 유대관계에 있던 개인들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통해 증

명된다.(252) 적선을 거부한 사람에게 거지가 내뱉는 저주, 임대료 미납, 공공부조에 대한 요구 같은 마녀들의 사악한 범죄는 마을 수준에서 일어난 계급투쟁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인다.(253)

### 마녀사냥과 계급저항

마녀사냥은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공격했지만 박해는 무엇보다 주술사나 치료사, 주문을 외우거나 점을 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마법적인 힘에 대한 이들의 주장은 행정당국과 국가의 권력을 침해했고, 빈민들에게 자연 및 사회적 환경을 조작하고 이미 구성된 질서를 전복할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이다. (257~8)

사회경제적 위기와 마녀사냥이 동시에 발생. “물가가 급등했던 시기 가장 많은 고발과 박해가 일어났다.” 훨씬 중요한 사실은 박해의 강도가 심해짐과 동시에 도시와 농촌에서 봉기가 터져 나왔다는 사실이다. “인클로저”에 반대하는 봉기, “소작농 전쟁” 등. 이런 봉기에서는 여성들이 종종 행동을 촉발하고 선도하곤 했다. 게다가 (반란이 깨지고 많은 남성들이 투옥되거나 살육을 당한 후에도) 좀 더 은밀한 방식으로나마 저항을 이어간 것 또한 여성들이었다.(258)

우리는 봉기에 대한 공포가 사바트 혹은 시너고그에 대한 박해자들의 고집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260) 사바트는 성적으로 난잡한 괴물 같은 집단임과 동시에 전복적인 정치 집단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가담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설명과, 악마가 마녀들을 사주해서 지배자에게 저항하도록 한다는 식의 시선에서 절정을 이룬다.(261) 헨리 카멘에 따르면 사바트의 행태학에서 핵심적인 주제인 식인풍습에 대한 위협은 농민반란의 행태학과 닮아 있다. 그는 인육을 먹는 것은 사회적 가치의 총체적인 전복을 상징한다고 지적한다.(262) 파리네토는...야행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바트는 주인에 대한 반란과 성적 역할의 붕괴를 통해 주체화된 유토피아의 악마적 형태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자본주의적 노동규율과는 상반되는 시공간의 사용을 드러낸다고 결론 내린다.(263)

### 마녀사냥, 여성사냥, 노동의 축적

이단과 사술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사술을 여성 범죄로 여겼다는 점이다. 16세기와 17세기 유럽에서 마법이라는 범죄로 재판받고 처형당한 이들의 80% 이상이 여성이었다.(266) 이단박해와 마녀박해 사이의 더 큰 차이는 마녀박해에서는 성도착 및 영아살해에 대한 비난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따라서 피임술을 사실상 악마화했다는 점이다. 이노센트 8세의 교서 이후로 재생산과 관련된 범죄들은 마녀재판에서 두드러지게 등장하기 시작했다.(267)

그렇다면 어째서 이단에서 마법으로 경로가 변하게 되었을까? 즉, 1백년에 지나면서 왜 이단은 여성이 되었으며, 종교 및 사회적 위범행위는 왜 주로 재생산범죄에 집중되었을까?(268)

[일단] 이것은 가정이다. 분명한 것은 인구감소에 집착하는 정치계급이 마녀사냥을 촉발했고, 인구규모가 국부를 좌우한다는 확신이 이를 부채질했다는 점이다. 16세기와 17세기가 중상주의의 전성기였다는 점, 그리고 이즈음부터 인구에 대한 기록(출생, 사망, 결혼)과 인구조사가 시작되고 인구학이 최초의 “국가과학”으로 공식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마녀사냥을 추동한 정치집단 내에서 인구이동에 대한 통제가 얻고 있던 전략적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270)

많은 마녀들이 여성의 재생산과 관련된 지식과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던 “현명한 여인들”이거나 산파들이었다는 점 또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270) 16세기 말엽부터 프랑스와 잉글랜드에서는 여성들이 산파술을 시행할 수 있는 허가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17세기 초에 이르러 최초의 남성 산파가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한 세기도 안 되어 산파술은 거의 전적으로 국가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271)

마치 인클로저가 농민들로부터 공유지를 박탈한 것처럼 마녀사냥은 여성들로부터 신체를 박탈했다. 따라서 신체는 노동의 생산을 위한 기계로 전략하지 않게 막아주던 모든 예방장치에서 “해방되었다.” 화형대의 광경은 공유지에 둘러쳐진 담장보다 더 무시무시한 장벽을 여성의 신체 주변에 세워놓았기 때문이다.(272)

마녀사냥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미친 영향에 집중할 때, 그것은 여성들이 출산을 통제하는데 사용해왔던 수단을 악마적인 방법이라고 몰아붙임으로써 이를 파괴해버렸고, 여성의 신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제도함으로써 여성의 신체를 노동력 재생산에 종속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음이 분명해진다.(272~3)

산파나 모성을 거부한 여성, 거지들만 마녀에 속했던 것이 아니다.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문란한 여성들(창녀, 간통한 여성, 결혼과 출산의 구속 밖에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행사한 여성들)또한 마녀였다. 그렇기 때문에 마녀재판에 “평판이 나쁜” 것은 유죄의 증거였다.(273) 하지만 일탈적인 여성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여성, 특히 낮은 계급의 여성들이 재판을 받았다.** 또한 피고에 대한 고문이 보여준 성적 가학증은 역사상 필적할 데가 없는 여성혐오증을 보여주는데, 이는 마법을 범죄의 하나로만 보았을 때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274)

마녀사냥은 여성에 대한 전쟁이었다. 이는 여성을 비하하고 악마화하여 이들의 사회적 권력을 파괴하기 위한 집단적인 시도였다. 동시에 고문실에서, 그리고 마녀들이 죽어가던 화형대에서 여성성과 가정에 대한 부르주아적 이상이 구축되었다. 마녀사상이 표적으로 삼았던 관습과, 같은 시기 가족생활과 젠더, 소유관계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입법이 금했던 행위들 간에는 틀림없는 연속성이 있다.(275)

### 마녀사냥과 남성지상주의: 여성 길들이기

16세기와 17세기의 재판에서 새롭게 등장한 마녀와 악마간의 관계는 마녀사냥의 성정치를 폭로한다.(276) 마녀사냥은 (중세의) 악마와 마녀간의 권력관계를 뒤집어놓았다. 이제는 여성이 하수인이자 노예이며 신체와 마음이 모두 악령인 존재이고, 악마는 이런 여성의 소유주이자 주인이며, 투쟁이인 동시에 남편으로 기능한다. 게다가 결혼생활에서 여성들이 짊어지고 갈 운명을 정확하게 예시라도 하듯 마녀는 단 한 명의 악마를 맞아들인다. 마녀사냥 시기 악마는 남성으로 그려졌다.(277)

마녀사냥은 남성지상주의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남성이 여성을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남성의 파괴자로 여기게 만들었다. 하지만 남성을 거세시키거나 성적 불구로 만든 이 마녀들은 누구였을까? 모든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278)

“마녀사냥은...저항의 모든 잠재적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파편화시켰다. 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지배적인 사회집단에 의존하게 되었다. 더욱이 마녀사냥은 이들의 좌절을 분출할 수 있는 국지적인 배출구가 되어주었다. 이로써 다른 어떤 사회집단보다도 빈민들이 기독교의 권위와 세속적 질서에 맞서기 어려워졌고, 부의 재분배와 사회적 지위의 균등화 같은 요구사항을 내걸지 못하게 되었다.”(마빈 헤리스, 280~1)

마녀들이 남성들을 성적 불구로 만든다는 비난과 남성의 성적 열정을 과도하게 자극한다는 비난이 동시에 존재했던 것은 분명 모순이다. 신체적 발기부전은 도덕적 취약함과 짝을 이룬다. 이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위가 잠식되었음을 육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282) 성적으로 적극적인 여성은 공공의 위협이자 사회적 질서에 대한 위협이다. 남성의 책임감과 노동 및 자기통제능력을 뒤엎어버리기 때문이다.

여성들에게 16세기와 17세기는 성적 탄압의 시대가 시작된 서막. 검열과 금지가 여성과 섹슈얼리티 관계를 규정하게 되었다.(283) 근대의 여명기에 어떻게 “권력”에 의해 사람들이 강제로 성에 대해 입을 열게 되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가톨릭 목회와 고해성사라는 푸코의 주장이 틀렸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283~4) 푸코가 감지했던 성에 대한 “담론적 폭발”은 마녀사냥 고문실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다. 분명 마녀사냥의 언어는 여성을 본성적으로 변태적이고 육욕이 더 강한 다른 종으로 “생산”했다. 또한 “여성변태”의 생산은...**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노동으로 변형하기 위한 첫단추였다.**(284)

### 마녀사냥과 섹슈얼리티의 자본주의적 합리화

마녀사냥은...여성의 성적활동을 노동과 남성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출산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출산과 무관하고 비생산적인 모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반사회적이



고 사실상 악마적이라는 이유로 금지한 것이다. 출산과 무관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반감은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늙은 마녀 신화에 잘 포착되어 있다. 이 이미지는 더 이상 출산 능력이 없는 “늙고 추한 여성”의 성생활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새로운 성적 규율을 보여준다.(285)

마녀재판에서는 나이와 무관하게(하지만 계급은 관계있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꾸준히 수간과 동일시했다.(286) 마녀의 삶에 동물이라는 잉여적 존재가 연결되는 것은 여성이 남성과 동물 간의 (파악하기 어려운) 교차로에 놓여 있음을, 또한 여성의 섹슈얼리티만이 아니라 여성성 자체가 동물성과 유사함을 암시한다. 이 등식을 완성하기 위해 마녀는 동물로 변신한다는 혐의를 뒤집어쓰곤 했다. 가장 일반적으로 들먹이는 동물이 두꺼비였는데, 이는 질의 상징으로서 섹슈얼리티와 수간, 여성성, 악마를 모두 종합하는 존재였다.(288)

마녀사냥은 새로운 자본주의적 노동규율에 순응하여 가족 내에서의 재산상속과 출산을 위협하거나, 노동에 들어갈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곳에 낭비하게 만드는 모든 성적 활동을 범죄화하는 광범위한 성생활의 재구조화를 위한 주요 수단이기도 했다. 동성애, 연소자와 연장자 간의 사랑, 다른 계급간의 사랑, 향문성교, 노출, 춤 등이 “비생산적”이라는 이유에서 금지.(288) 농민들의 모임이나 반란자들의 캠프, 축제, 무도회처럼 일탈의 잠재력이 있는 모든 모임은 당국에서 사바트로 묘사함.(290)

마녀사냥을 통해 확립된 매춘부와 마녀간의 관계는 특히 중요하다. 이 둘의 통념은 어긋나는 힘과 돈을 얻기 위해 자신을 팔았다는 점에서 (악마에게 영혼을 판) 마녀는 (남자들에게 몸을 판) 확대된 매춘부의 이미지다. 더욱이 (늙은) 마녀와 매춘부 모두 불임의 상징이자 출산과 관계없는 섹슈얼리티의 의인화된 존재였다. 매춘부는 마녀사냥이 시작되면서...물리적으로는 죽음, 사회적으로는 범죄화의 형식으로 거부당했다.(292) (한편) 고급마술에 대한 박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악마연구자들은 고급마술(특히 점성술과 천문학)을 과학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을 마녀와 세심하게 구분했다.(293~4)

### 마녀사냥과 신세계

유럽의 마녀들과 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은 아메리카의 식민지 원주민들과 아프리카의 노예들이었다. 유럽 여성들의 운명과 아메리카 인디언 및 아프리카인들의 운명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상호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녀사냥과 우상숭배라는 비난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 지역 주민들의 저항을 꺾어내고 식민화와 노예무역을 정당화했다.(294) 흑인과 여성에게 찍힌 야성과 비합리라는 낙인은 유럽의 여성들과 식민지 남녀를 임금에 내포된 사회적 계약에서 배제하고 결과적으로 이들에 대한 착취를 자연화하는 데 일조했다.(296)

### 마녀, 치유자, 그리고 근대과학의 탄생

역사적으로 마녀들은 마을의 산파이자 의료진이었고, 예언자 혹은 마법사였다.(297~8) 민간치유자들에 대한 박해가 진행되면서 여성들은 수 세대를 걸쳐 전수하고 축적해 왔던 약초와 치유법에 대한 경험적 지식의 유산을 박탈당했고, 이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인클로저가 나타나게 되었다. 다른 아닌 전문의학이 등장하게 된 것. (299)민간치유사로서의 마녀가 의사에게 밀려났다는 사실은 근대과학의 발달과 과학적 세계관이, 마녀사냥의 성쇠에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낳는다.(299~300)

또 다른 문제는 근대적인 과학수단의 등장을 마녀사냥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301) 합리주의와 기계론은 세상이 자연의 착취에 열을 올리게 만드는 데 기여하긴 했지만 마녀박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마녀사냥을 선동할 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중세 말에 이르러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권력을 위협하던 존재양식 전반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느끼게 된 유럽 엘리트들의 필요였다. 이 과업이 완수된 시점에, 다시 말해서 사회적 규율이 복원되고 지배계급이 자신의 헤게모니가 확립되었다고 느끼는 시점에서 마녀사냥은 중단된 것이다. (304)

17세기 중반 이후로 사법 및 종교재판 분야의 열정에 제동을 걸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305) 마법이 가진 전복적인 잠재력이 파괴되자 오히려 마법은 합법적인 지속을 보장받았다.(306) 18세기에 이르자 유럽 지식층은 계몽의 획득에 자랑스러워하며 마녀사냥을 중세적인 미신의 산물로 일축하고 당당하게 마녀사냥의 역사를 다시 써 나갔다.(307) 하지만 마녀의 그림자는 지배계급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1871년 파리의 부르주아지들은 파리코뮌을 지지하는 여성들이 파리를 화염에 던져 넣으려 한다며 이들을 악마화했고, 이로써 본능적으로 마녀사냥 시대로 회귀하려 했다.(307~8)

### 5장 식민화와 기독교화: 신세계의 캘리번과 마녀들

몸과 마녀의 역사는 “캘리번과 마녀”라는 언급 속에 축약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캘리번과 마녀는 식민화에 저항하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상징하는 『템페스트』의 등장인물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이란 신세계 주민들의 종속과 자본주의로의 이행기에 일어났던 유럽 민중들, 특히 여성들의 종속 간에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럽인들과 아메리카인들이 겪어야 했던 유사한 처우는 자본주의의 발달을 지배하는 단일한 논리의 존재와 이 과정에서 자행되는 만행의 구조적 성격을 충분히 보여준다. 마녀사냥이 아메리카의 식민지로 확산된 것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사례다.(311)

실버블렛의 『달, 해, 그리고 마녀들』(1987), 파리네토의 『마녀와 권력』(1998)은 모두 신세계에

서 역시 마녀사냥은, 공포를 불어넣고 집단적인 저항을 파괴하며, 공동체 전체를 침묵시키고 구성원들이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기 위해 **행정당국이 사용했던 고의적인 전략**이었음을 보여 준다. 맥락에 따라서는...**인클로저 전략**이기도 했다. [하지만] 마녀사냥이 피식민자들의 저항을 말살시키는 못했다. (312) 오히려 이 박해는 5백여 년간 반식민 저항과 반자본주의 저항의 근원이 되었을 뿐이다. 지구 곳곳에 있는 원주민들의 존재양식과 자원에 새로운 공습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은 아주 중요하다.(313)

### 식민자들의 탄생

(처음에는) 종교교육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했던 범죄(남색, 식인풍습, 근친상간, 이성의 옷을 입는 행위)는 (정복이 진행되자) 모두 “인디언들”이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이들에게서 땅과 생명을 빼앗아도 괜찮다는 징표로 인식되었다.(315~6) 식민지 정복에 대한 기록에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서 발견한 식인의례가 유독 부각되지만, 이는 그 시절 유럽에서 흔했던 의료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스페인인들이 1550년대 이후 원주민들에 대해 느꼈던 공포는 단순히 문화적 충격에서 기인했다고 보기가 힘들다. 이는 오히려 노예로 만들려는 사람들에게서 인격을 박탈하고 이들을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어야만 했던 식민화의 논리 속에 내재한 반응으로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317)

1550년대 이후 유럽에서는 신세계의 삶을 그린 삽화들이 유통되기 시작함. 삽화 속의 피식민자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우르르 모여 사람의 머리와 사지를 주요리로 하는 식인연회를 벌였는데, 이는 마녀들의 사바트를 연상시킨다.(318)

### 착취, 저항, 그리고 악마화

1550년대에 스페인 정부가 아메리카 식민지에 훨씬 더 혹독한 착취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식민화 과정과 함께 진행된 우상숭배 반대 캠페인과 반인디언 선동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동기는 식민지 정복 이후 도입된 “약탈경제”의 위기 때문.(319~320)

하지만 식민화에 대한 저항 역시 고조되고 있었다. 멕시코와 페루 양국에서 식민지 규율을 가혹하게 강화하는 길을 열어준 원주민 문화에 대한 전쟁이 선포된 것은 바로 이런 도전에 대한 대응에서였다.(321)

페루에서 마법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은 156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마침 이때 타키 온코이 운동 역시 촉발되었다. 타키 온코이 운동은 후아까스(지방신)를 통한 범 안데스적 통합을 요청함으로써 가족단위의 전통적인 조직에서 파생된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의 시발이 되었다는 점에서 [식민자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322) 이에 대한 대응에서 1567년 리마에서 기독교 의회가 개최, 성직자들이 “원주민들의 미신과 의식, 악마적인 의례의 뿌리를

뽑아야 함을 확인했다.”(322~3) 후아까스를 파괴하거나, 숭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동체와, 그 역사적인 뿌리, 사람들이 대지와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이들이 자연과 맺고 있는 대단히 영적인 관계를 공격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323)

지방신에 대한 공격은 사그라지지 않고 날로 심해지다 1619년과 1660년 사이에 절정에 달해서 이 시기에는 우상 파괴가 진짜 마녀사냥을 동반했다. 특히 여성을 공격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326) 스페인인들은 부분적으로 승리했다. 고문과 익명의 비난, 공개적인 굴욕 앞에서 많은 유대와 우정이 산산이 부서졌다. 자신들이 신의 힘을 가졌다는 신념이 약해졌고, [지방신에 대한] 숭배는 정복되기 전처럼 은밀한 개인적 행위로 변해갔다.(327)

### 아메리카의 마녀와 여성

타키 온코이 운동에서 중요한 존재는 역시 여성이었다. 유서 깊은 존재양식을 가장 강력하게 방어하고 새로운 권력구조에 반대한 것은 여성들이었던 것이다. (328) 식민지 점령 이전만 해도 아메리카 여성들은 자신들의 조직과 사회적으로 공인된 활동영역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남성들과 동등하지는 않았지만 남성들과 보완적인 관계에서 가족과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스페인인들이 도착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이들은 여성혐오적 신념을 주입하여 남성들에게 우호적인 방식으로 경제 및 정치권력을 재조직했기 때문이다.(329) 여성들이 천대받게 된 또 다른 원인은 일부다처제를 불법화한 새로운 스페인 법령이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어떤 식으로든 식민지 당국과 성직자들에게 협력하기를 거부했던 여성들은 식민통치의 중요한 적이 되었다.(330) 17세기 고문과 극심한 박해, 그리고 “강제된 문화적 동화”의 영향 하에서 대체로 늙고 가난한 안데스 여성들은...유럽 마녀재판에서 거론되던 것과 동일한 죄목으로 수모를 겪었다.(332)

하지만 안데스의 마녀들은 공동체에서 버림받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동반자로 적극적인 추앙을 받았고 비공식적인 마을 모임들은 모두 이들의 참여를 원했다.”(332) 종교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대체로 여성들의 저항 때문이었다. 여성, 그중에서도 특히 여사제들은 공동체와 문화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333)

### 마녀사냥과 지구화

아메리카의 마녀사냥 물결은 17세기 말까지 꾸준히 이어지다가 식민지 권력구조의 정치 및 경제적 안정성이 증가하는 한편 인구가 감소하면서 막을 내렸다.(339) 박해가 있었던 곳에서는 우상숭배와 마법을 “이성적인 사람들”은 고려할 가치도 없는 무지한 이들의 기벽이라고 생각하는 가부장적 관점이 나타났다. 그 이후로 악마숭배에 대한 박해는 브라질, 카리브해연안,

북미에서 생겨나고 있던 노예 플랜테이션으로 옮겨갔다.(340) 18세기에 이르자 마녀는 [서인도제도의 토착마법인] 오비를 실행하는 아프리카인들을 의미하게 되었고, 농장주들은 이 오비를 반란선동으로 여겨 겁을 집어먹고 악마화했다.

노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도 부르주아의 레파토리에서 마녀사냥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식민화와 기독교화를 통한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확장으로 인해 식민화된 사회의 신체에 확실히 이식되어 피식민 공동체 스스로 자신들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박해를 실행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1840년대 서인도에서의 마녀화형 물결. 마녀사냥은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 특히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처럼 노예무역에 한때 연루되었던 나라에서 분열의 핵심수단으로 지속되고 있다.(341) 1890년대와 1990년대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정책이 시행되면서 케냐, 나이지리아, 카메룬에서도 마녀사냥이 보고되었다.(342)

과거의 교훈을 현재에 적용시켜보면 1980년대와 1990년대 세계 곳곳에서 마녀사냥이 재등장했던 것은 “시초축적”과정의 분명한 증표임을 깨달게 될 것이다. 이는 토지와 다른 공유자원의 사유화, 빈곤의 만연, 약탈, 한때 끈끈했던 공동체에 분열의 씨뿌리기 같은 것들이 다시 세계적인 의제로 상정되는 것을 의미한다.(343)